

일상의 고통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김 아 영

평상시와 다름없이 석식을 먹고 야자를 준비하던 어느 날, 미미하게 부족한 호흡과 뻗뻗해진 손발에 이상함을 느꼈다. 의지와 상관없이 굳어버린 몸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관촬아지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일생에 겪어본 적 없었던 상황임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다. 크게 아프지 않았고 아프다고 병원 가면 “고3은 원래 다 아파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19살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만 겪을 줄 알았던 증상은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나타났고 어느새 일상에 녹아들어 반복되고 있었다. 강해지는 고통과 짧아지는 주기에도 시간이 지나면 관촬아졌기에 안일한 생각으로 몇 주를 참았다. 주위에서도 자주 아픈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병원을 권유하지 않았다. 금방 낫기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호흡이 부족하고 손발이 굳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무지에서 병이 시작되었다.

미미하던 호흡은 어느새 혈떡임으로 바뀌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뻗뻗하게 굳었던 손발은 어느새 온몸으로 퍼져 혀까지 움직일 수 없었다. 굳어버린 팔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눈물만 흘리다 결국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언제 쓰러졌지?’였다. 스스로 쓰러졌다는 것도 모른 채 병원에 실려온 꼴이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을 두어번 깜빡였을까. 움직임을 알아차린 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쓰러지기 전 상황을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과호흡 증후군 같습니다. 고3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꼭 쉬게 해주십시오.”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병원에서 들은 병명을 연신 검색해봤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응급실을 갔지만, 번번이 고3이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원인조차 모르는 병명에 낙담도 했지만, 성인이 되면 사라질 병이겠거니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였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성인이 되면 사라질 것 같은 증상은 오히려 더욱 잦아져 일상을 괴롭혔다. 호흡과 손발에만 나타났던 증상은 심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3 때보다 더 자주 응급실에 실려갔다. 고통이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검사는 받지 않았다. 그저 ‘고3 때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가 생각의 전부였다. 그러다 내가 검사를 받게 된 것은 병원의 권유 때문이었다. 두어 번은 병원에서 되돌려보내다 자주 실려온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내게 차근차근 문제를 설명해 주며 심장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니 심장 질환 검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무조건 검사하라는 의사의 말에 검사 예약을 했으나 속으로는 콧방귀를 치고 있었다. 20살의 나이에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는 게 말인가?

예약한 날짜에 맞춰 심장 초음파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24시간 기계를 달고 일주일간 갖은 검사를 받은 후에야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 문장에 나는 동공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부정맥입니다.” 20살이었던 나에게는, 처음 듣던 병이었다. 머릿속이 멍해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한 귀로 빠져나왔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심장에 병이 있을 수 있나?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 화면 속에 마구잡이로 날뛰는 맥박의 그래프에 납득하였다.

‘아. 어린 나이에 심장병이 생길 수 있구나.’

생각이 정리된 후에야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약 한 통과 진단서를 손에 쥐고 병원에 나왔을 때는 하릴없이 눈물만 흘렸다. 한창 놀 20살에 왜 이런 질병을 얻어야 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럼에도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실마리 같은 희망을 가지고 휴대폰을 집어 이것저것 검색하였지만 나오는 정보들은 오히려 절망을 가져왔다.

“부정맥은 평생 간대요.”

“저희 아버지가 50대이신데 부정맥에 걸리셨어요.”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데, 부정맥 나올 수 있긴 한가요 ㅠㅠ?”

20살이 부정맥 걸렸다는 포스팅과 질문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고, 병세가 호전된다는 포스팅은 더더욱 찾기 힘들었다. 체념한 채로 응급실에 덜 실려온다면 다행이겠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하루, 이틀. 평상시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이전과 다른게 있다면 매주 순환기 내과를 방문에 심장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 번거롭다 생각했으나 약을 복용하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예전과 같은 일상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일주일에 2~3번은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고 손발이 저렸지만 이제 그러지 않았고, 한 달에 1~2번은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됐다. 자그마한 약 한 알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의사 선생님도 호전되는 몸 상태를 알아차리셨는지 약 용량을 점차 낮추었고 낮아진 용량에 이제야 아프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심장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지만 사람들은 심장과 관련된 질병을 많이 접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보내는 심장의 고통에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게다가 나와 같이 어린 나이라면 심장이 아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기침을 하면 감기인가?라고 생각하고 콧물이 나면 비염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나이라고 해도 평상시와 달리 심장이 갑갑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정맥 진단을 받고 친구들에게 내가 겪은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몇몇은 증상을 겪은 적이 있지만 심장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며 놀라워하다 일찍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스스로 낫지 않을 거라는 불신에 휩싸인다면 불안감에 심장은 더욱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증상마다 다르겠지만 부정맥은 치료를 통해 완화 혹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다. 아픈 순간은 고통에 몸이 절여져 숨조차 쉬지 못하지만, 약을 복용한다면 심장 때문에 호흡이 불편한 횡수는 현저히 줄어든다. 푹푹 쓰러지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는다.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부정맥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고 조금만 노력을 쏟으면 호전될 수 있다.
날뛰는 고동과 잔잔한 고동은 일상에 섞여 들어 몸에 드러날 테니, 사람들이 일상의 고동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내가 무지하여 그러지 못하였기에.

